원로문화예술인 소식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다 '연극 연출가 이수일'

연극배우이자 연출가 - 이수일 선생님

1935년 일본에서 태어나셨으나, 해방 이후 1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선대 때부터 살아온 경주에서 터전을 잡아 고등학교까지 다니셨으며, 1955년 당시 연극을 가르치던 유일한 학교였던 서라벌예술대학교(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영화과로 진학하였고, 졸업하자마자 충무로 바닥을 누비고 다니며 연극배우와 영화제작 조감독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지 출처 : 이수일 선생님

다양한 감정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 연극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셨던 분

이수일 선생님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던 연극에 어려서부터 관심이 많으셨고, 동네친구들과 함께 배역을 정채서 직접 연극을 해보며 재미를 느끼셨으며, 6·25 전쟁 중 힘든 상황속에서도 우연히 보게 되었던 연극은 선생님께 희망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연극을 통해 접했던 친근함과 편안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사람들도 알기 쉬운 작품을 기반으로 작품들을 구성하였고, 그렇기에 선생님께서 연출하신 작품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나무씨앗을 키워보세요.

예술나무를 키워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나라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후원하는 당신도 예술가입니다.

고향에서 연극의 꽃을 피워보겠다는 꿈

고향 경주로 돌아가셨던 이수일 선생님은 1956년, 친구였던 황동근 김태무 선생님과 함께 에밀레극단을 만드셨고, 극단 단장 겸 연출을 맡으셨습니다.



이미지 출처 : 이수일 선생님 (맨 오른쪽 이수일 선생님)

당시 에밀레극단은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최초로 발족된 연극 단체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었기에 연극하는 사람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마음을 모은 연극인들 덕분에 1957년 유치진의 <마의태자>로 경주극장에서 창단 기념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일 선생님은 1987년 경주시립극단도 창단하셨으며, 두 극단을 40여 년 동안 이끄시면서 100여 편의 연극 작품 대부분을 연출하여 공연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주요경력

- 에밀레극단 대표 (현 고문)
- 한국연극협회 경주지부장 및 부이사장 등 역임
- 한국연극예술상 수상
- 경주시 문화상 수상
- 경북예술상 수상
- 동랑연극상 수상

작품활동

○ <마의태자>, <산적>, <원효대사>, <사육신>, <배비장전>,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어느 아버지의 죽음>, <봄날>, 등 다수작 연출